

대학생의 건강관련 생활태도와 모유수유의지에 관한 연구

이조윤 · 현화진* · 이강욱
중부대학교 관광보건대학

A Study on Health-related Lifestyles and Intention Toward Breast-Feeding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Jo Yoon Lee, Wha Jin Hyun*, Kang Wook Lee
College of Tourism & Health, Joongb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a health-related lifestyle on knowledge, attitude, control belief and behavior intention toward breast-feeding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order to develop a breast-feeding education program for students of childbearing age. The subjects were 445 university students (125 male and 325 female) residing in eight provinces in Korea. The overall percentage of subjects intending to breast-feed their baby was 80.7% (73.6% of males and 84.2% of females). Overall, 84.2% of the subjects had high concerns about their health status. Scores reflecting a positive attitude, knowledge, and control beliefs toward breast-feeding were significantly higher ($p < 0.05 \sim p < 0.001$) in female students, students majoring in medicine, and higher grades. The students who scored high at attitude, knowledge, and control beliefs also had a significantly higher ($p < 0.001$) intention to breast-feed. When we investigated the sub factors of attitudes toward breast-feeding, significantly more students taking nutrient supplements scored high for physiological factors ($p < 0.05$) and health-related factors ($p < 0.01$). Significantly more non-smoking and non-drinking students scored high for health-related factors ($p < 0.001$) and physiological factors ($p < 0.001$), respectively. The intention to breast-feed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p < 0.01$) in students who did not smoke, but not with other health-related lifestyles. In summar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majority of university students intend to breast-feed, with students having a positive attitude, higher knowledge, and stronger control beliefs having a higher intention to breast-feed. Although a student's health-related lifestyle affects their attitudes on the physiological and health-related aspects of breast-feeding, only smoking status had an observable connection on the intention to breast-feed. Thus, when developing breast-feeding education programs for students, we recommend efforts to enhance a favorable attitude, knowledge, and control beliefs toward breast-feeding.

Key Words: Breast-feeding, health related lifestyle, interest degrees in health, knowledge, attitude, control belief toward breast feeding, university students

1. 서 론

우리나라 모유수유 실태는 완전모유수유 6개월 미만의 경우, 2003년 29.5%, 2006년 26.8%, 2009년 36.2%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으로 인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보여지나, 지속적인 모유수유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이는 모유수유가 아기와 산모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수유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여성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며, 젊은 미혼 가입 여성의 경우,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기에 대한 수유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고자하는 자세와 정보가 부족하며 같은 맥락에서 정부와 사회단체의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하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Lee 등 2006, Kim & Park 2008, Jang 등 2012).

특히 아기와 산모에게 모유영양의 다양한 이점을 획득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동안 완전모유수유를 할 경우 효과적이라는 WHO의 권고를 비롯한 많은 보고(Cernadas 등 2003, Callen 등 2004, Forster 등 2006)를 감안할 때, 여성

*Corresponding author: Wha Jin Hyu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Joongbu University, 201 Daehakro, Chubu-myon, Geumsan-gun, Chungnam-do 312-702, Korea Tel: 82-41-750-6727 Fax: 82-41-750-6060 E-mail: wjhyun@joongbu.ac.kr

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많은 연구 보고가 있었다. 또한 많은 보고에서 여성의 모유수유 관련 지식, 태도, 신념 등이 모유수유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모유수유를 증진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비롯한 대학생에게 모유수유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Lee 등 2012). Song 등(2008)은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관련지식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미래에 아버지가 될 남학생에게도 배우자에게 모유수유를 권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Lee 등(2008)은 여대생의 모유수유 지식 및 태도 조사 연구에서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대학교육에서 여대생을 위한 모유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교생의 모유영양 지식과 태도 및 모유수유 영양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고교생들은 모유영양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유영양 실천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모유영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Choi 등 2006).

Song 등(2007)은 한국청소년의 모유수유 관련 건강교육을 위한 e-정보전략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모유수유 빈도가 낮은 현상과 관련하여 모자보건의 차원에서 정부와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과 교육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Kim 등(2002)은 모유수유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여성들의 수유양상 기초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모유수유율이 낮은 특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Seo 등(2000)은 산후 초산모에게 제공한 모유수유 권장 교육이 모유수유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유수유교육은 산후뿐만 아니라 산전을 포함하여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Joan 등(2007)은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한 모유영양교육의 결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전문적 수준의 교육과정 개설이 요구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Yardaena 등(2011)은 미국 소아과 의사들에게 제공된 모유수유 교육과 지원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미국의 소아과 의사는 모유수유와 관련하여 교육과 지원에서 부족하며 모유수유의 증진을 위해 소아과 의사들은 모유영양 지식과 기술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연구결과에서 모유수유율의 증가를 위해서는 엄마의 모유수유에 대한 실천의지와 모유수유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최근 들어 모유수유 및 모유영양에 관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많은 연구 결과는 여성의 산전, 산후에도 모유수유와 관련된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모유수유 의지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혼인 및 출산을 하게 될 현재 재학 중인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및 건강관련 생활습관과 함께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모유수유 관련 태도, 지식, 통제신념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대학생의 건강에 대한 인식 차이가 모유수유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가설과 대학생의 모유수유에 관한 인식이 모유수유 의지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가설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모유수유증진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우리나라 모유수유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남녀대학생의 모유수유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록식 방법으로 조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제시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작성토록 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남녀 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11월1일부터 2012년 4월 31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에 위치한 S대학교, M대학교, 부산에 위치한 Y대학교, 경기도에 위치한 H대학교, 충남에 위치한 J대학교, 전남에 위치한 M대학교, 경북에 위치한 K대학교, A대학교를 선정하였으며, 보건계열 학과를 포함한 전체 학문 전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는 총 455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응답이 불충분한 응답자 10(2.22%)명을 제외하고 자료분석을 수행한 대상자는 남학생 125명, 여학생 320명으로 총 445(97.80%)명이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연구도구 및 측정문항)

1) 일반적 특성 및 조사변수

조사내용은 성별, 나이, 전공, 학년, 종교, 가족형태 등의 일반특성과 미래 자신의 아기에 대한 수유의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 정도(“전혀 관심 없다”에서 “매우 관심이 있다”까지의 5점척도), 흡연여부 및 흡연량, 음주여부 및 음주량, 커피음용여부, 영양제 복용 여부 및 영양제 종류 등과 같은 건강관련 변수 등을 조사변수로 활용하였다.

2) 연구도구

(1) 모유수유 태도

태도란 한 개인의 행위에 대한 내부적 평가를 나타내는 것

으로 대학생의 모유수유 태도 측정을 위하여 다수의 연구문헌(Choi & Lee 2006, Claibourne 등 2007, Marie & Dodgson 2007)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전체 11문항의 설문을 개발하였다. 모유수유 태도에 대한 요인별로 아기에 대한 영양 및 생리에 관한 4문항, 산모의 생활에 관한 4문항, 산모의 건강관련 3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5점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모르겠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88$ 로 나타났다.

(2) 모유수유 지식

대학생의 모유수유 지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문헌(Kim 등 2002, Choi 2003, Marie & Dodgson 2007)과 IIFAS(Iowa Infant Feeding Attitude Scale) 측정 도구 문항(Claibourne 등 2007)을 수정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설문은 아기에게 주는 이점 4문항, 엄마에게 주는 이점 4문항, 아기의 생리 관련 4문항, 아기의 영양 관련 3문항, 수유 방법 관련 5문항 등 총 20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정답은 1점, “모르겠다”와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84$ 로 나타났다.

(3) 모유수유 통제신념

통제신념이란 행위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상황에 대한 행동잠재성의 일반화된 기대치를 나타내는 개념(Rotter, 1966)으로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 모유수유행위에 대한 통제신념은 Moon 등(1999)과 Oh 등(1994)의 문헌을 통해 모유수유 행위에서 주된 장애요인으로 파악된 행위를 표집하고 각각의 저해요인에 대하여 “~할 경우에도 모유를 먹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서술문항을 개발하여 산모의 유방 관련 저해요인 4문항, 산모의 생리 관련 저해요인 4문항 및 산모의 건강관련 저해요인 4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5점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모르겠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51$ 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모유수유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유수유 태도, 지식정도, 통제신념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태도, 지식 및 통제신념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 및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 건강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집단에서 모유수유관련 태도, 지식 및 통제신념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유수유의 태도, 지식정도,

통제신념의 정도를 구분하기 위해 Choi & Lee(2006)의 방법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모유영양 태도점수(5점 기준)에서 제1사분위수(Q1; 25 percentile) 값은 3.24점, 제2사분위수(50 percentile) 값은 3.53점, 제3사분위수(75 percentile) 값은 3.83점이었으며, 지식정도점수(20점 기준)에서 제1사분위수(Q1; 25 percentile) 값은 8.0점, 제2사분위수(Q2; 50 percentile) 값은 12.0점, 제3사분위수(Q3; 75 percentile) 값은 15.0점이었다. 그리고 통제신념점수(5점 기준)에서 제1사분위수(Q1; 25 percentile) 값은 2.92점, 제2사분위수(50 percentile) 값은 3.17점, 제3사분위수(75 percentile) 값은 3.50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Q1 이하군(LK: low knowledge group, LA: low attitude group, LC: low control belief group), Q1~Q3군(MK; medium knowledge group, MA: medium attitude group, MC: medium control belief group), Q3 이상군(HK; high knowledge group, HA: high attitude group, HC: high control belief group)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자신의 건강관심도에 따른 태도, 지식정도, 통제신념의 차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모유수유태도에 대한 하위영역의 확인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추출과 구성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여 회전하는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방식인 베리맥스(varimax)를 적용하였다.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정을 위한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alpha 계수에 의해 평가하였다. 건강관련 생활습관에 따라 요인분석에 의해 확인된 모유수유관련 태도의 하부요인 중에서 생리요인 제1사분위수(Q1; 25 percentile) 값은 4.00점, 제2사분위수(Q2; 50 percentile) 값은 4.50점, 제3사분위수(Q3; 75 percentile) 값은 5.00점이었으며, 실천요인 제1사분위수(Q1; 25 percentile) 값은 2.75점, 제2사분위수(Q2; 50 percentile) 값은 3.00점, 제3사분위수(Q3; 75 percentile) 값은 3.75점이었고 건강요인 제1사분위수(Q1; 25 percentile) 값은 3.33점, 제2사분위수(Q2; 50 percentile) 값은 3.66점, 제3사분위수(Q3; 75 percentile) 값은 4.33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모유수유태도 하부요인의 정도를 Q1 이하군, Q1~Q3군, Q3 이상군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생활태도에 따른 모유수유의 차이가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SPSS 17.0이 이용되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445명 중에 남학생은 125명(28.1%) 여학생은 320명(71.9%)이었으며, 연령은 21~23세가 55.3%로 가장 높았으며 18~20세 25.2%, 24~26세 15.7%, 27세 이상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Variable		Participants	
		n	%
Gender	Male	125	28.1
	Female	320	71.9
Age (year)	18~20	112	25.2
	21~23	246	55.3
	24~26	70	15.7
	Over 27	17	3.8
Major	Non-medicine	303	68.1
	Medicine	142	31.9
Grade level	Freshman	139	31.2
	Sophomore	113	25.4
	Junior	116	26.1
	Senior	77	17.3
Religion type	Protestant	55	12.4
	Catholic	117	26.3
	Buddhist	45	10.1
	Other	2	0.4
	Unaffiliated	226	50.8
Family type	Two generation family	398	89.4
	Over three generation family	47	10.3

3.8%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는 보건계와 비보건계로 구분하였을 때 각각 31.9%와 68.1%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89.4%가 두세대 가족이었으며 10.6%가 세세대 이상 가족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종교를 갖지 않은 대상자가 50.8%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가톨릭 26.3%, 기독교 12.4%, 불교 10.1%, 기타 0.4% 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미래 모유수유의지 및 건강관련 특성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모유수유의지 및 건강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미래 자신의 아기에게 모유수유 의지를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 중 359명(80.7%)이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답했으며 14명(3.1%)은 모유수유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72명(16.2%)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전체 여학생 317명 중에 267명(84.2%)이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답했으며, 전체 남학생 125명 중에 92명(73.6%)이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모유수유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설문에 84.2%가 높은 관심도를 보인 반면 9.2%는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제 복용 여부는 20.4%가 복용한다고 답했으며 흡연여부는 9.9%만이 흡연한다고 답했다. 음주는 60.9%가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피는 61.1%가 커피를 마신다고 답했다.

<Table 2> Breast feeding factors of the subjects

Variable		Participants	
		n	%
Breast feeding behavior intention in the future	Yes	Male	92 73.6 ¹⁾
		Female	267 84.2 ²⁾
	No	14	3.1
Subjective interest degrees in health	Don't know	72	16.2
	Very low	11	2.5
	Low	30	6.7
	Average	29	6.5
Nutrient Supplement Intakes	High	184	41.3
	Very high	191	42.9
Smoking status	Yes	91	20.4
	No	354	79.6
Drinking alcohol status	Yes	44	9.9
	No	401	90.1
Drinking coffee status	Yes	271	60.9
	No	171	38.4
Drinking coffee status	Yes	272	61.1
	No	173	38.9

¹⁾Ratio of male students replied "Yes" of total male students

²⁾Ratio of female students replied "Yes" of total female students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모유수유 태도, 지식정도 및 통제신념과의 관계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모유수유관련 태도, 지식정도, 통제신념의 점수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 모유수유 태도 정도의 차이

조사 대상자의 모유수유관련 태도 정도에 대한 차이는 성별에 따라 여자 대학생이 3.59점으로 남자 대학생의 3.4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p<0.01), 전공에 따라 보건계열 전공자 3.64점으로 비보건계열 전공자 3.51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또한 저학년(1,2학년) 집단의 3.48점, 3.47점보다 고학년(3,4학년) 집단에서 3.69점, 3.6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반면 Choi(2003)의 대학생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태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자연계학생들이 인문계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Lee 등 (2008)은 의학계학생과 비의학계 학생간의 모유 수유태도의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2) 모유수유 지식정도의 차이

조사 대상자의 모유수유관련 지식 정도의 차이와 성별, 보건계열 전공여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유

<Table 3> Differences in breast feeding attitudes, knowledges and control belief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ttitudes		Knowledges		Control beliefs					
	Mean	SD	Mean	SD	Mean	SD				
Gender	Male	3.46	0.47	9.6	4.46	3.15	0.5			
	Female	3.59	0.43	12.1	3.76	3.26	0.48			
	t-value	-2.924**		-5.975***		-2.076*				
	p	.004		.000		.038				
Major	Non-Medi.	3.51	0.46	10.72	4.17	3.17	0.5			
	Medicine	3.64	0.4	12.85	3.62	3.35	0.43			
	t-value	-2.921**		-5.222***		-3.802***				
	p	.004		.000		.000				
Grade	Fereshman	3.48	a	0.43	10.01	a	4.00	3.12	a	0.44
	Sophomore	3.47	a	0.39	10.91	a	3.93	3.20	ab	0.47
	Junior	3.69	b	0.44	13.07	b	3.87	3.31	bc	0.53
	Senior	3.61	b	0.48	12.09	b	4.01	3.34	c	0.5
	F-value	7.061***		13.969***		5.108**				
	p	.000		.000		.002				

*p<.05, **p<.01, ***p<.001

^{a,b,c}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수유관련 지식정도점수는 성별에 따라 여자 대학생이 12.10으로 남자 대학생의 9.60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p<0.001), 전공에 따라 보건계열 전공자 12.85점으로 비보건계열 전공자 10.72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또한 저학년(1,2학년) 집단의 10.01점, 10.91점보다 고학년(3,4학년) 집단에서 13.07점, 12.0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이와 같은 결과는 Lee 등(2008)의 보고에서 지식 정도는 의학계가 비의학계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Choi(2003)는 인문계 학생들은 자연계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의학계나 자연계 학생의 경우, 전공 특성으로 모유수유 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고학년의 지식이 높았던 결과는 Lee 등(2008)의 학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3) 통제신념의 차이

조사 대상자의 모유수유관련 통제신념 정도에 대한 차이도 성별에 따라 여자 대학생이 3.26점으로 남자 대학생의 3.1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p<0.05), 전공에 따라 보건계열 전공자 3.35점으로 비보건계열 전공자 3.17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또한 저학년(1학년) 집단의 3.12점보다 고학년(3,4학년) 집단에서 3.31점, 3.3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4. 조사 대상자의 모유수유 태도, 지식정도 및 통제신념과 모유수유 의지와와의 관계

모유수유의 태도, 지식정도, 통제신념의 정도와 모유수유 의지에 대한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비록 수유의지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수가 적어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대체로 조사 대상자의 모유수유관련 태도, 지식정도, 통제신념 모두 각각의 점수가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모유수유의지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과 모유수유 실천 의지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학생 대상의 Choi(2003)의 연구에서도 모유영양을 계획한 군의 영양지식과 태도점수가 인공영양과 혼합영양을 계획한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임신부의 태도나 신념은 모유수유 실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Chung & Lee, 1993), 초임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Kim & Park, 2001)에서는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와 통제신념이 모유수유 실천의도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모유수유 실천의도를 예측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5. 건강인식 정도에 따른 모유수유관련 태도, 지식정도 및 통제신념의 차이

건강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다른 그룹에서 모유수유의 태도, 지식, 통제신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남녀 대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1=전혀 관심

<Table 4> Differences in breast-feeding behavior intention according to breast-feeding attitudes, knowledges and control beliefs

	Attitudes groups			Knowledges groups			Control beliefs groups			
	LA	MA	HA	LK	MK	HK	LC	MC	HC	
Breast-feeding behavior intention	yes	74 (62.2) ¹⁾	194 (87.4)	91 (90.1)	79 (67.5)	209 (84.3)	71 (92.2)	80 (69.0)	193 (85.0)	86 (86.9)
	No	10 (8.4)	3 (1.4)	1 (1.0)	3 (2.6)	10 (4.0)	1 (1.3)	9 (7.8)	2 (0.9)	3 (3.0)
	Don't know	35 (29.4)	25 (11.2)	9 (8.9)	35 (29.9)	29 (11.7)	5 (6.5)	27 (23.3)	32 (14.1)	10 (10.1)
	Total	119 (100.0)	222 (100.0)	101 (100.0)	117 (100.0)	248 (100.0)	77 (100.0)	116 (100.0)	227 (100.0)	99 (100.0)
χ^2	41.565***			27.573***			21.034***			
p	.000			.000			.000			

¹⁾n (%), ***p<0.001

LA: low attitude group, MA: medium attitude group, HA: high attitude group

LK: low knowledge group, MK; medium knowledge group, HK; high knowledge group

LC: low control belief group, MC: medium control belief group, HC: lhigh control belief group

<Table 5> Differences in breast-feeding attitudes, knowledges and control beliefs according to subjective interest degrees in health

	Attitudes groups			Knowledges groups			Control beliefs groups			Total	
	LA	MA	HA	LK	MK	HK	LC	MC	HC		
Subjective interest degrees in health	Very low	3 (27.3) ¹⁾	5 (45.5)	3 (27.3)	3 (27.3)	6 (54.5)	2 (18.2)	2 (18.2)	5 (45.5)	4 (36.4)	11 (100.0)
	Low	6 (20.0)	16 (53.3)	8 (26.7)	7 (23.3)	17 (56.7)	6 (20.0)	9 (30.0)	17 (56.7)	4 (13.3)	30 (100.0)
	Average	10 (34.5)	17 (58.6)	2 (6.9)	11 (37.9)	16 (55.2)	2 (6.9)	6 (20.7)	20 (69.0)	3 (10.3)	29 (100.0)
	High	61 (33.2)	94 (51.1)	29 (15.8)	54 (29.3)	101 (54.9)	29 (15.8)	50 (27.2)	98 (53.3)	36 (19.6)	184 (100.0)
	Very high	40 (20.9)	91 (47.6)	60 (31.4)	43 (22.5)	110 (57.6)	38 (19.9)	49 (25.7)	89 (46.6)	53 (27.7)	191 (100.0)
χ^2	20.774**			6.327			10.833				
p	0.008			0.611			0.211				

¹⁾n (%), **p<0.01

LA: low attitude group, MA: medium attitude group, HA: high attitude group

LK: low knowledge group, MK; medium knowledge group, HK; high knowledge group

LC: low control belief group, MC: medium control belief group, HC: lhigh control belief group

없다, 5=매우 관심이 있다.)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이나 통제 신념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유수유 관련 태도 정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인식정도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아서 그의 해석을 어렵게 한다. 이는 본 연구결과가 건강에 대한 인식을 '주관적인 관심도'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대상자들의 건강관련 인식을 명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후속 연구에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6. 모유수유관련 태도 요인과 건강관련 생활습관의 차이

앞선 결과<Table 5>에서 대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인식하

는 정도에 따라 모유수유관련 태도의 정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건강관련 생활습관과 모유수유태도의 하부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Table 6>은 모유수유관련 태도의 하부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요인분석결과이다.

분석 결과 모유수유관련 태도의 하부요인은 산모 및 아기의 생리적 문제와 관련된 4개 문항(모유수유를 하면 아기가 질병에 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모유수유를 하면 아기에게 알레르기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모유수유를 하면 아기에게 영양적으로 가장 우수할 것이다, 모유수유를 하면 아기의 지능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다.)을 생리요인으로 구분하였

<Table 6>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n attitudes of mother's to breast feeding

Concepts/Factor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α	
Attitude	Physiology factors	Disease Prevention	.837	2.777	25.246	.846
		Allergy Prevention	.831			
		Nutritional superiority	.820			
		Development of Intelligences	.742			
	Practice factors	Body-shape change	.847	2.465	22.409	.790
		Breast-shape change	.824			
		Marital relationships discouragement	.799			
		Restricting freedom of mother	.640			
	Health factors	Postpartum body weight loss	.850	2.177	19.789	.803
		Uterine contraction of postpartum	.816			
		Breast cancer chemoprevention	.775			
	Total Variance (%)			67.444		
Kaiser-Mayer-Olkin (KMO)			.805			
Barlett's sphericity test			1919.946			
p-value			000***			

***p<0.001

<Table 7> Differences in factors of attitudes according to health-related lifestyle

		Attitudes									
		Physiology factors groups			Practice factors groups			Health factors groups			Total
		Q1	Q1-3	Q3	Q1	Q1-3	Q3	Q1	Q1-3	Q3	
Nutritional supplements intake	Yes	10 (11.0) ¹⁾	37 (40.7)	44 (48.4)	34 (37.4)	37 (40.7)	20 (22.0)	14 (20.0)	26 (37.1)	30 (42.9)	91 (100.0)
	No	66 (18.6)	169 (47.7)	119 (33.6)	130 (36.7)	169 (47.7)	55 (15.5)	85 (32.4)	116 (44.3)	61 (23.3)	354 (100.0)
	χ^2	7.559			2.574			11.247			
	p	0.023*			0.276			0.004**			
Smoking	Yes	11 (25.0)	17 (38.6)	16 (36.4)	21 (47.7)	20 (45.5)	3 (6.8)	20 (52.6)	17 (44.7)	1 (2.6)	44 (100.0)
	No	65 (16.2)	189 (47.1)	147 (36.7)	143 (35.7)	186 (46.4)	72 (18.0)	79 (26.9)	125 (42.5)	90 (30.6)	401 (100.0)
	χ^2	2,413			4.492			17.139			
	p	0.299			0.106			000***			
Drinking alcohol	Yes	58 (21.4)	120 (44.3)	93 (34.3)	97 (35.8)	131 (48.3)	43 (15.9)	67 (33.2)	86 (42.6)	49 (24.3)	271 (100.0)
	No	17 (9.9)	85 (49.7)	69 (40.4)	64 (37.4)	75 (43.9)	32 (18.7)	32 (25.0)	55 (43.0)	41 (32.0)	171 (100.0)
	χ^2	9.823			1.029			3.482			
	p	0.007**			0.598			0.175			
Drinking Coffee	Yes	46 (16.9)	136 (50.0)	90 (33.1)	104 (38.2)	130 (47.8)	38 (14.0)	68 (33.5)	82 (40.4)	53 (26.1)	272 (100.0)
	No	30 (17.3)	70 (40.5)	73 (42.2)	60 (34.7)	76 (43.9)	37 (21.4)	31 (24.0)	60 (46.5)	38 (29.5)	173 (100.0)
	χ^2	4.484			4.154			3.383			
	p	0.106			0.125			0.184			

¹⁾n (%), *p<0.05, **p<0.01, ***p<0.001

Q1; ≤25 percentile (Group under the first quartile) Q1-3: >25 and <75 percentile, Q3; ≥75 percentile (Group over the third quartile)

<Table 8> Differences in behavior intention of breast-feeding by health-related lifestyle

		breast-feeding behavior intention			χ^2	p
		Yes	No	Don't know		
Nutritional supplements intake	Yes	75(83.3) ¹⁾	3(3.3)	12(13.3)	0.447	0.800
	No	284(80.7)	11(3.1)	57(16.2)		
Smoking	Yes	27(61.4)	3(6.8)	14(31.8)	12.651	0.002**
	No	332(83.4)	11(2.8)	55(13.8)		
Drinking alcohol	Yes	216(80.6)	8(3.0)	44(16.4)	0.769	0.681
	No	142(83.0)	6(3.5)	23(13.5)		
Drinking coffee	Yes	219(81.4)	6(2.2)	44(16.4)	2.153	0.341
	No	140(80.9)	8(4.6)	25(14.5)		

¹⁾n (%), **p<0.01

고, 산모의 모유수유 실천과 관련된 4개 문항(모유수유를 하면 엄마의 몸매를 보기 싫게 만들 것이다, 모유수유를 유방의 모양을 변형시킬 것이다, 모유수유를 하면 엄마와 아기가 더 친밀해 질 것이다, 모유수유를 하면 엄마가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을 실천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산모의 건강과 관련된 3개 문항(모유수유를 하면 엄마의 출산후 체중감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모유수유를 하면 엄마의 출산후 자궁수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모유수유를 하면 엄마의 유방암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다.)을 건강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생리요인에 대한 신뢰도계수는 0.846, 실천요인에 대한 신뢰도계수는 0.790, 건강요인에 대한 신뢰도계수는 0.803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의 적합성 검정을 위한 KMO값은 0.80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1919.946(p=0.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합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은 건강관련 생활습관에 따라 요인분석에 의해 확인된 모유수유관련 태도의 하부 요인인 생리요인, 실천요인 및 건강요인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대학생의 건강관련 생활습관과 모유수유관련 태도의 하부 요인별 관계를 살펴보면, 영양제복용군에서 비복용군보다 생리요인수준(p<0.05)과 건강요인수준(p<0.01)이 높은 군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흡연군에서는 흡연군보다 건강요인수준이 높은 군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또한 음주군보다 비음주군에서 생리요인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며(p<0.01), 커피음용여부는 모든 하부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커피음용여부를 제외한 생활습관에서 생리요인 및 건강요인 태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실천요인 태도에서는 생활습관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건강관련 관점이 그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모유수유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대학생들에 대한 건강교육과 아울러 모유수유의 건강에 대한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초임여성 대상의 Kim & Park

(2001)의 연구에서도 모유수유 태도와 실천의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항목이 아기의 건강과 지능에 관련된 문항이어서 영양교육을 실시할 때 모유가 아기 건강에 주는 이득을 강조하는 것이 모유수유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7. 건강관련 생활습관에 따른 모유수유의지

<Table 8>은 건강관련 생활습관에 따라 모유수유의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결과이다.

분석 결과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모유수유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흡연자에서 모유수유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러나 대학생 대상의 Choi(2003)에서는 흡연여부는 모유수유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본 결과와 상이하였다. 반면 모유수유관련 태도 중에서 생리요인과 건강요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영양제복용 여부는 미래 모유수유의지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밖에 음주 및 커피 음용 여부 또한 향후의 모유수유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의 증진을 위해 가까운 미래에 부모가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증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시행하였다. 그중 한 부분으로 대학생의 건강에 대한 관심 및 건강관련 생활습관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 및 태도를 검토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모유수유증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에서 남학생 125명, 여학생 325명 총 44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모유수유 및 건강관련 특성 중에서 미래 자신의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답한 대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 359명(80.7%)이었으며, 남학생 중에 73.6%가 여

학생 중에 84.2%가 모유수유의지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모유수유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전체 응답자 중 84.2%가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모유수유 태도, 지식정도 및 통제신념간의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태도는 성별에 따라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p<0.01$), 전공에 따라 보건계열 전공자가 비보건계열 전공자 보다 높게 나타났($p<0.01$). 또한 저학년(1,2학년) 집단 보다 고학년(3,4학년)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p<0.001$). 지식정도는 성별, 보건계열 전공여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점수는 성별에 따라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p<0.001$), 전공에 따라 보건계열 전공자가 비보건계열 전공자 보다 높게 나타났($p<0.001$). 또한 저학년(1,2학년) 집단 보다 고학년(3,4학년)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p<0.001$). 통제신념은 성별에 따라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p<0.05$), 전공에 따라 보건계열 전공자가 비보건계열 전공자 보다 높게 나타났($p<0.001$). 또한 저학년(1,2학년) 집단 보다 고학년(3,4학년)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p<0.01$).

3) 조사대상자의 모유수유관련 태도, 지식정도 및 통제신념과 모유수유의지와 관계를 살펴본 결과, 태도, 지식정도, 통제신념의 수준이 높은 집단 모두에서 모유수유의지가 높게 나타났($p<0.001$).

4) 조사대상자의 건강인식 정도와 모유수유관련 지식정도, 태도 및 통제신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에 따른 모유수유관련 지식정도나 통제신념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유수유관련 태도에 있어서는 인식정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5) 모유수유관련 태도의 하부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요인분석결과, 모유수유관련 태도의 하부 요인은 생리요인, 실천요인, 건강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대학생의 건강관련 생활습관과 모유수유관련 태도의 하부요인별 관계를 살펴보면, 영양제복용군에서 생리요인수준($p<0.05$)과 건강요인수준($p<0.01$), 비흡연군에서 건강요인수준($p<0.001$), 비음주군에서 생리요인수준($p<0.001$)이 높은 군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커피음용여부는 모든 하부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 생활습관과 모유수유의지 관계를 살펴본 결과, 흡연자에 비해 비흡연자에게서 모유수유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p<0.01$), 반면에 영양제복용 여부, 음주 및 커피음용 여부는 모유수유의지와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 진다. 특히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지식정도 및 통제신념이 높은 집단에서 모유수유의지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미래 모유수유율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지식정도 및 통제신념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반면에 대학생의 건강관련 생활습관은 모유수유관련 태도 중 생리요인과 건강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모유수유의지와는 흡연을 제외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당초 기대하였던 바와 상충되는 결과로서 이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생의 성별, 전공, 학년 간의 차이 및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과 모유수유 의지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었던 연구라 여겨진다.

감사의글

본 논문은 2011년도 중부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참고문헌

- 김승원, 김유경, 조애지, 김혜련, 임성은. 2009. 2009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pp 282-294
- 이조윤, 현화진. 2006. 모유영양. 광문각. 서울. pp 11-18
- Arlene de la Moral, Daniel W. Russell, Claibourne I. Dungy, Mary Losch, Lois Dusdieker. 1999. The Iowa infant feeding attitude scale: analysi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11):2362-2380
- Callen J, J. Pinelli. 2004. Incidence and duration of breast feeding for term infants in Canada, United States, Europe, and Australia: a literature review. *Birth*, 31(4):285-292
- Cernadas J, N. Greciela, L. Barrera, A. Martinez, A. garsd. 2003. Maternal and perinatal factors influencing the duration of exclusive breast feeding during the first 6months of life. *Journal of Human Lactation*, 19(2):136-144
- Choi KS. 2003. A study on the future plans for infant feeding practice and its associated fact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8(2):240-249
- Choi KS, Lee HJ. 2006. A study on knowledges and attitudes about breast milk feeding and needs for breast milk feeding educ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1(2):191-204
- Chung HK, Lee ML. 1993. The pattern of the attitude of pregnant women on breast feeding.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3(2):126-141
- Claibourne I. Dungy, Rhona J. McInnes, David M. Tappin, Anne Baber Wallis, Florin Oprescu. 2008. Infant feeding attitudes and knowledge among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 women in Glasgow. *Matern Child Health J.*, 12:313-322
- Forster D, H. McLachlan, J. Lumley. 2006. Factors associated with breast feeding at sixmonths postpartum in a group of Australian women. *International breast feeding Journal*, 1(18):1-18
- Hill Gina Jarman, Dennis B. Arnett, Eileen Mauk. 2008. Breast-feeding intention among low-income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32(2):125-136
- Jang GJ, lee SL, Kim HM. 2012. Breast feeding rates and factors Influencing breast feeding practice in late preterm infants: comparison with preterm born at less than 34weeks of gestational age. *J. Korean Acad Nurs.*, 42(2):181-189
- Joan E. Dodgson, Marie Tarrant. 2007. Outcomes of a breast feeding educational intervention for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27:856-867
- Kim JE, Park DY. 2001. A study on predicting behavioral intention of breastfeeding among primigravida.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6(3):331-339
- Kim JE, Park DY. 2008.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and needs of breast feeding education for pregnant women in health center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3(6):818-828
- Kim KN, Hyun TS, Kang NM. 2002. A survey on the feeding practices of women for the development of a breast feeding education program. *Korean Journal Community Nutrition*, 7(3):345-353.
- Lee HK, Song Y, Kang NM. 2008. A survey of female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breast feeding. *J Community Nutrition*, 13(3):367-373
- Lee SO, Na SS, Park KY. 2012. Exclusive breast feeding rates of breast feeding-willing mother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by the 1st, 3rd, and 6th month of postpartum.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16(1):44-55
- Marie T., J. E. Dodgson. 2007. Knowledge, attitudes, exposure and future intentions of Hong Kong university students toward infant feeding. *JOGNN*, 36(3):243-254
- Moon GN, Jung JH, Kim YJ, Lee SO, Choi GS, Chung ES, Bai JY. 1998. Breast feeding practice according to the breast-feeding problem during the first week of postpartum. *Korean J Women Health Nurs.*, 4(3):416-428
- Oh HE, Park NJ, Im ES. 1994. An analitic study measuring factors interrupting in breast-feeding. *The Korean journal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nursing*, 4(1):68-79
- Rotter J.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609:1-28
- Seo IS, Jung MS, Suh YS. 2000. Effect of education for encouraging breastfeeding on practice of breastfeeding. *Korean J Women Health Nurs.*, 6(4):632-642
- Song BC, Cho JH, Lee IY, Kim MK. 2008. A study on knowledge on breast feeding of college students by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Korean J. Food Culture*, 23(2):268-272
- Song Y, Kim AJ, Lee YS, Yoo TW, Kang NM. 2007. Evaluation the breast feeding information websites for Korean adolescents. *Korean J. Food & Nutr.*, 20(4):487-493
- Yardaena B. Osband, Robin L. Altman, Patricia A. Patrick, Karen S. Edwards. 2011. Breast feeding education and support services offered to pediatric residents in the US. *ACADEMIC PEDIATRICS*, 11:75-79

2012년 11월 27일 신규논문접수, 2013년 2월 25일 수정논문접수, 3월 19일 수정논문접수, 3월 21일 채택